

20 헨젤과 그레텔

CD2-08

그림 동화

- ¹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오빠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여동생 남매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남매의 아버지와 못된 새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연히 이 말을 들은 헨젤과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하얀 자갈을 주워서 돌아왔습니다.
- ² 다음 날, 새어머니는 남매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헨젤과 그레텔은 숲길 중간중간에 자갈을 놓아 두었습니다. 깊은 숲으로 들어가자 새어머니는 남매만 두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킁킁한 밤에도 달빛에 빛나는 하얀 자갈을 따라 길을 찾았습니다.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아이들을 보자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새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그림 동화

Brüder Grimm. ドイツ・ハーナウ生まれのヤーコブ (1785~1863年) とヴィルヘルム (1786~1859年) の兄弟。ドイツ各地で収集した昔話を『グリム童話集』にまとめた。

- ¹ 昔、ある貧しい家に兄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という妹の兄妹が住んでいました。ある日、二人の父親とひどい継母は食べる物がなくなると、子どもたちを森に捨てようと言っていました。偶然この話を聞いた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は外に出て、白い砂利を拾って帰ってきました。
- ² 翌日、継母は兄妹を森に連れていきました。行く途中、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は森の道の途中途中に砂利を置いておきました。深い森に入ると、継母は兄妹だけ置いて家に逃げました。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は真っ暗な夜にも月光に光る白い砂利に沿って道を探しました。家に無事に帰ってきた子どもたちを見て、父親は喜びましたが、継母は怒りました。

- ¹ 가난하다: 貧しい, 貧乏だ 남매 (男妹): 男と女がどちらも含まれたきょうだい. 兄妹, 姉弟
-자는: ~しようという. -자고 하는의 縮約形 우연히: 偶然 자갈: 砂利 줍다: 拾う
- ² 킁킁하다: 真っ暗だ. 陽母音の감감하다に対応する陰母音の形で, より重く暗い印象を与える 무사히: 無事に

³ 새어머니는 아이들이 자갈을 주우러 나가지 못하도록 해 놓고, 아침이 되자 빵 한 조각을 들려 주고는 다시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빵을 먹지 않고, 조금씩 뜯어 길에 흘렸습니다. 남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빵 조각은 이미 새들이 먹어 치우고 없었습니다.

⁴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과자로 만든 집이 보였습니다. 과자집에 사는 할머니가 친절하게 남매를 집 안으로 불렀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배고프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⁵ 그러나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 친절한 할머니는 다음 날 마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녀는 헨젤을 우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레텔, 너는 빨리 밥을 짓고, 헨젤 너는 살이 썩어야 해. 그래야 맛있으니까.” 마녀는 그레텔을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헨젤에게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빨리 살찌라고 보냈습니다.

³ 継母は子どもたちが砂利を拾いに出られないようにして、朝になるとパン一切れを持たせてまた森に連れていきました。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はパンを食べず、少しずつちぎって道に落としました。兄妹が家に帰ろうとした時、パン切れはすでに鳥が食べてしまって、なくなっていました。

⁴ 道に迷った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は、とてもおなかがすいてきました。そのとき、目の前にお菓子でできた家が見えました。お菓子の家に住むおばあさんが親切に兄妹を家の中に呼びました。「早く入りなさい。おなかがすいているだろう?」おばあさんは笑いながら言いました。

⁵ ですが、食べ物と寝る場所をくれた親切なおばあさんは翌日、魔女の姿に変わりました。魔女はヘンゼルをおりの中に閉じ込めました。「グレーテル、おまえは早くご飯を炊いて、ヘンゼル、おまえは太るんだよ。そうしないとおいしくないから」。魔女はグレーテルを召し使いのように働かせました。ヘンゼルにはあらゆるおいしい料理を与えて早く太れと文句を言いました。

³ 조각: 切れ端. 한 조각で「一切れ」の意味 들리다: 持たせる. 들다 (持つ)의使役形 -고는: ~して. -고의強調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 뜯다: ちぎる, 切り離す -어 치우다: ~してしまう

⁴ -렴: ~しなさい. 目下への親しみを込めた命令を表す

⁵ 잠자리: 寝床 마녀: 魔女 우리: おり, 케ージ, 動物小屋 가두다: 閉じ込める 하녀: 下女, 召し使いの女性 부리다: (人や動物などを)使う, 働かせる 온갖: ありとあらゆる, 全ての 보채다: うるさく要求する, せがむ

6 며칠 후, 마녀는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쪼는지] 찼는지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헨젤은 우리 안에 있던 막대기를 손 대신 내밀었습니다. “아직이군. 너 말고 그레텔을 먼저 잡아먹어야겠다.” 마녀가 그레텔을 불렀습니다. “그레텔, 화덕 온도가 적당한지 보거라.” 그레텔은 마녀에게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마녀 ^[어떠케] 를 화덕으로 유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여 주마. 이렇 ^[이러] 게 화덕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녀가 화덕 안으로 ^[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레텔은 마녀를 화덕 속으로 확 밀친 다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마녀는 뜨거운 화덕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었습니다.

7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 있던 보물을 들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남매를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래오래 ^[행]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카게]

6 数日後、魔女はヘンゼルがどれくらい太ったか手を出してみろと言いました。ヘンゼルはおりの中にあった棒を手の代わりに出しました。「まだだな。おまえではなく、グレーテルを先に食べるか」。魔女はグレーテルを呼びました。「グレーテル、かまどの温度がちょうどいいか見なさい」。グレーテルは魔女に「どう見るのか分かりません」と言って魔女をかまどに誘い寄せました。「私がじかに見せてやろう。こうやってかまどの中に入った」。魔女がかまどの中へと首を下ろす瞬間、グレーテルは魔女をかまどの中にぱっと押し込んで、扉を閉めてしまいました。魔女は熱いかまどの中で悲鳴を上げながら死にました。

7 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は魔女の家にあった宝物を持って無事に家に帰りました。再び帰ってきた兄妹を父親はうれしそうに迎えてくれました。その後はずっと幸せに暮らしました。

6 내밀다: 差し出す 막대기: 棒 잡아먹다: 取って食う 화덕(火-): かまど -거라: ~しろ, ~せよ. 보다/가다 등, 限られた動詞に付く命令形の語尾 유인하다 (誘引--): 誘い出す, おびき寄せる, 引き付ける -마: ~しよう. 約束や宣言を表す単体の語尾だが, 使う人は年配の人に限られる. 판마르의 -르케에 該当する 고개를 숙이다: 頭を下げる, うつむく 확: ぱっと, 一気に 비명: 悲鳴 지르다: (声を)張り上げる, 叫ぶ